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8학년도 4월 26일 1교시	출제자	이정일, 임동미		
		반 번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선택형은 OMR카드에, 서술형은 서술형 답안지에 작성하세요.

[1~4, 서술형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팬클럽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수를 대상으로 한 오빠부대에서 시작한 팬클럽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현재는 가수, 배우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작가, 미술가, 정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청소년의 팬클럽 활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청소년이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경쟁 연예인에게 악성 댓글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하며, 청소년의 팬클럽 활동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나) 우선 팬클럽 활동은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준다. 청소년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학업, 진로, 교우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고민이 많다. 이럴 때 청소년은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푼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또래 집단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며 또래 문화를 공유하기도 한다.

(다) 또한, 팬클럽 활동은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요즘 팬클럽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위해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 )

(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의 팬클럽 활동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 팬클럽 활동은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을 주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팬클럽 활동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이 청소년의 팬클럽 활동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 준다면 청소년은 문화적으로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1. (가)의 ㉠에 들어갈 접속어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또한                      ② 하지만                      ③ 그리고  
④ 그런데                      ⑤ 그러므로

2. 위 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2.5점)

- ①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② 근거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③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표현했는가?  
④ 주장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받아들일 만한가?  
⑤ 주장을 중심으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3. (다)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2.5점)

- ① 방탄소년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 온 효순  
② 좋아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쌀 기부를 한 회원  
③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좋아하는 구단의 유니폼을 산 성욱  
④ 빅뱅 콘서트를 관람한 후 팬클럽 회원들과 경기장 휴지를 줍는 근영  
⑤ 공유의 팬클럽 카페에 가입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린 정현

4. 이 글 전체에서 (라)단락이 하는 역할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문제 상황의 실태를 보여준다.  
②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한다.  
③ 어떤 문제 상황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④ 문제 상황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세운다.  
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서술형 1>

(가)에서 고쳐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을 찾고 이를 고쳐 써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서술하시오.(6점)

- (1) 고쳐 써야 할 부분(3점) :  
(2) 고쳐 써야 하는 이유와 방법(3점) :

<조건> 가. (1)은 지문에서 찾아 그대로 쓸 것  
나. (2)의 경우 ‘~다.’의 한 문장으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 뒷면에 계속

[5~9, 서술형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김재현(찬성 2):** 반대 측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듣는 것으로 충분히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돈을 버는 것은 다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교육만으로는 경제관념을 익히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한 블로그에서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 감각이 몸에 배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면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돈을 아껴 쓰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용돈을 버는 것을 낭비와 연결 지은 반대 측의 의견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박희연(반대 2):** 찬성 측이 제시한 블로그의 사례는 한 개인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제 감각이 몸에 밴 이유가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인지 아르바이트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1년 고용 노동부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55.9퍼센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사고 싶은 물건 구매에 사용했고, 11.9퍼센트는 오락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불건전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제 1차 반론이 끝났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는 2차 반론을 해 주십시오.

**서영재(반대 1):**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찬성 측이 제시한 ○○중학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의 32.3퍼센트는 전단 돌리기를, 21.5퍼센트는 음식점 서빙을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진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저희 측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면담을 해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고 근로 계약서는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직업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갖게 합니다. 차라리 희망 직업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해 주십시오.

**이태은(찬성 1):** 제가 면담한 청소년 중에는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 경험이 외식 조리학과 진학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홍보 동영상 만들어 청소년을 위한 근로 기준법과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홍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근로 기준법을 잘 알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 측은 앞의 자료에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물건 구매나 오락비로 주로 쓴다고 했는데, 생활비로 쓰거나 부모님께 드리거나 저축하는 경우도 30.7퍼센트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제 토론자들의 반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1분간 의논할 시간을 갖고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나) **박희연(반대 2):**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려는 청소년이 많아서 근로 기준법을 잘 알게 된다고 부당한 대우가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더 많은 용돈을 버는 것은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그 업무가 단순하여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는 학교 교육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최종 발언을 해 주세요.

**김재현(찬성 2):** 많은 청소년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번 돈은 쉽게 쓰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아껴 쓰는 경험을 하며 청소년은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직업 세계에 대한 생생한 경험은 훗날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바람직합니다.

**사회자:** 네, 지금까지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청중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토론 과정을 바탕으로 토론 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토론의 준비 과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2.5점)

- ①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을 찾는다.
- ② 논제를 분석하고 중요 용어를 정의한다.
- ③ 토론의 과정을 고려하여 토론을 평가한다.
- ④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를 수집한다.
- ⑤ 상대방의 반론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한다.

## 6. 토론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2.5점)

- ①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지킨다.
- ②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말한다.
- ③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협력한다.
- ④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한다.
- ⑤ 상대의 말을 경청하여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 다음 장에 계속

7. 찬성 측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알맞은 것은?(3점)

- ①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등 경제관념이 생긴다.
- ②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은 단순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집안일을 도와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다.
- ④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사고 싶은 물건 구매에 사용하거나 오락비로 쓰는 등 불건전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 ⑤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로 계약서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직업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준다.

8. ㉠ ~ ㉣ 중, 선부른 일반화로 인해 주장의 객관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2.5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9. 토론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2.5점)

- ① 쟁점을 잘 파악했는가?
- ②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한가?
- ③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지켰는가?
- ④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 말투가 적절했는가?
- ⑤ 상대측의 논리적 허점은 무시하고 자기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부각했는가?

<서술형 2>

<보기>에서 ㉠에 알맞은 토론 용어와 토론의 논제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시오.(6점)

< 보기 > —————

태은: 선생님, 재현이랑 저는 찬성 측 입장에서 토론하고 싶은데, 꼭 찬성 측이 먼저 ( ㉠ )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토론의 논제는 주로 (      ㉡      )(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찬성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 (1) ㉠토론 용어(3점) :  
(2) ㉡논제의 특징(3점) :

<조건> ㉡은 3어절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서술형 3>

다음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논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두 가지를 쓰시오.(6점)

=====

재현: 우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찬성 측의 입장에서 토론을 준비해야 하잖아. 그런데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

태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낭비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재현: 내 생각에는 힘들게 번 돈이라 더 아껴 쓰고, 경제관념도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업 세계를 경험해 보면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어서 좋을 것 같아.

태은: 하지만 내가 찾은 신문 기사를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많았어. 그런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까?

재현: 그래? 그 자료는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일 수도 있겠다.

=====

(1) 쟁점 1(3점) :

(2) 쟁점 2(3점) :

<조건> ‘~를 하면 ~가?’ 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쓸 것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 뒷면에 계속

[10~14, 서술형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길'

(나) 뒤뜰 어둠 속에

나뭇짐을 부려 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무 한 쪽을 예쁘게 깎아 내셨다.

말할 힘조차 없는지

무쪽을 받아 든 채

아궁이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는데

환히 드러난 아버지 이마에

흘러 난 진땀 마르지 않고 있었다.

어두워진 산길에서

후들거리는 발끝걸음으로

어둠길 가늠하셨겠지.

불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다시 이어지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

㉡그 모든 소리들 한데 어울려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다.

- 임길택, '저녁 한때'

(다)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쓰옥, 쓱 훑아 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가 앓아 누우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 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꾸짖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다디달게 핥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에 꼭 참고 있던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쓰옥, 쓱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 손택수, '흰둥이 생각'

10. ㉠과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③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④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  
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1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2.5점)

- ㉠ (가), (다)의 화자는 어린아이이다.
- ㉡ (가), (나), (다) 모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③ (가), (나)에는 가족 간의 단란한 사랑이 드러난다.
- ④ (가), (다)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⑤ (나)는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 다음 장에 계속

**1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희망적인 시구와 부정적인 시구를 대조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시각, 청각적 심상 등 다양한 심상을 통해 주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③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랑이 충만한 희망적인 상황을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을 사용해 표현하고 있다.
- ⑤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태도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봄길을 걷어가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1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말하는 이는 어른으로 현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②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통해 부부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후각적, 미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골 가정의 단란한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 ④ 말하는 이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어조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모습을 청각화하는 공감각적인 심상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서술형 4>**

(가)는 ‘~이 끝나는 곳에서도 / ~이 있다 / 스스로 ~이 되어 / ~ 걷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6점)

**<조건>** ‘~ 하고 ~한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쓸 것

**<배점>** 가. 효과 한 가지만 맞은 경우 : 3점

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1점 감점

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14. ㉠과 같은 심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 개 고르면?(3점)**

- ① 강나루 건너서 /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 ② 안개 자욱한 화원지(花園地)의 벤치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 ③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④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 ⑤ 나는 향기로운 너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너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서술형 5>**

(나)의 1, 2연에서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5점)

**<조건>**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그대로 쓸 것

**<배점>** 가. 정답 이외 부분을 쓸 경우 : 0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서술형 6>**

(다)에서 (1) 화자의 집안 형편이 나타난 부분과 (2)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 쓰시오.(5점)

(1) 화자의 집안 형편이 나타난 부분(2점) :

(2)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나타난 부분(3점) :

**<조건>** 가. 시구를 그대로 찾아 쓸 것

**<배점>** 가. 관련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 뒷면에 계속

**[15~18, 서술형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하인리히 모어는 편에 꽃혀 있는 나비 중 한 마리를 상자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날개 아랫부분을 살펴 보았다. 그가 말했다. “참 이상하지. 나비를 볼 때만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나비를 다시 제자리에 꽃고 상자 뚜껑을 덮으며 말했다. “잘 봤네.” 약간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그 추억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자네의 수집 판을 자세히 보지 않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아 주게.” 그가 말했다. “나도 어릴 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이 좀 상했다네. 창피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나) 나는 이 소년에게 푸른 날개의 나비를 보여 주었다네. 그는 무슨 전문가나 되는 듯이 그것을 감정하고 나더니, 희귀한 것임을 자기도 인정하면서, 20페니히의 값은 된다고 하였고. 그러나 그는 이내 트집을 잡기 시작하여, 날개를 편 방식이 나쁘다느니, 오른쪽 더듬이가 비틀어졌다느니, 왼쪽 더듬이가 뻗어 있다느니, 그 위에 다리가 두 개 떨어졌다느니 하며, 제법 그럴듯한 결합을 늘어놓았어. 나는 그러한 결점을 그다지 대단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그의 혹평으로 하여 내 푸른 날개의 나비에 대한 기쁨은 다분히 허물어졌고, 그래서 나는 두 번 다시 그에게 수집물을 보여 주지 않았다네

(다) 나는 나방을 오른손에 감추고 층계를 내려오는데 그때, 아래편에서 위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났어. 순간, 나는 내가 비겁한 놈이란 것을 깨달았다네. 그와 동시에 들키면 어쩌나 하는 무서운 불안에 사로잡혀, 나는 본능적으로 나방을 감춘 손을 그대로 양복저고리 주머니 속에다 찔러 넣었어. 그리고 천천히 발을 떼어 놓았어. 그러면서 속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부끄러운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지.

(라)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방을 내 손으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더 괴로운 일이었다네. 날개의 갈색 분이 온통 나의 손끝에 묻은 것을 보았지. 그리고 또, 날개의 바스러진 조각들이 책상 위에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보았어. 그것을 완전

히 원형대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대신 내가 가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즐거움도 기꺼이 버릴 수 있었을 거야.

(마) 나는 그제야 그것이 나의 소행인 것을 밝혔다네. 그랬더니 에밀은 격분하지도, 큰소리로 꾸짖지도 않고, 혀를 차며 한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나직한 소리로, “알았어. 말하자면 너는 그런 자식이란 말이지?” 라고 하더군. 나는 그에게 내 장난감을 모두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냉담하게 앉아, 여전히 나를 비웃는 눈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내가 수집한 나비를 전부 주겠다고 했지.

(바) 그때 나는 비로소,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해도 바로 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네.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키스만을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고마웠지. 어머니는 나더러 그만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어. 여느 날보다는 시간이 늦은 편이기는 했지. 그러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식당으로 가서 갈색의 두껍고 커다란 종이 상자를 찾아가 가지고 와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어둠 속에서 뚜껑을 열었어. 그리고 그 속에 든 나비들을 꼬집어내어 손끝으로 비벼서 못쓰게 가루를 만들었다네.

=====

**15. 이 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에밀은 하인리히가 잡은 푸른 날개 나비의 희귀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 에밀은 차분하고 나비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인물이다.
- ③ 어른이 된 에밀과 하인리히는 어린 시절 나비 수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④ 하인리히의 어머니는 정직을 중요시 여기며 아들에게 매우 까칠한 분이다.
- ⑤ 하인리히는 에밀이 사과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화가 나서 나비를 가루로 만들었다.

☞ 다음 장에 계속

**<서술형 7>**

<보기>는 나(하인리히)의 정신적 성숙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드러난 행동을 통해 인물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각각 서술하시오.(6점)

< 보기 >	
A	B
도둑질을 한 것보다 공작나방을 망가뜨린 것을 더 괴로워함.	→ 그동안 수집한 나비를 가루로 만들.

(1) A에 드러난 가치관(3점) :

(2) B에 드러난 가치관(3점) :

**<조건>** 가. 답안은 ‘~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서술할 것  
나. <보기>에 나온 단어는 사용하지 말 것

**<배점>** 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1점 감점

나.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16.** 보기를 통해 본 소설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2.5점)

< 보기 >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춥고 배고프고 앞날이 막막해 미래가 안 보일 때, 소설 속 주인공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보면서 위안을 받을 때가 있다. “누구의 인생이든 비는 내린다.”라는 통펠로의 시 한 구절로 나는 개인적으로 힘겹던 시기를 견뎌냈다.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따끈한 한 공기의 밥보다, 구겨진 지폐 한 장보다 엄청난 용기와 힘을 주곤 했다. 바로 이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 이수인,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서

- ① 소설은 인간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 교훈을 준다.
- ② 소설은 개성적이고 솔직하기에 독자로 하여금 반성하게 한다.
- ③ 소설에 그려진 흥미로운 사건을 읽으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 ④ 소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준다.
- ⑤ 소설 속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며 위로받거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17.** (가) 글의 시점과 일치하는 것은? (3점)

- ①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 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성삼이가 다 탄 담배 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불을 댕겨 가지고 일어섰다.  
- 황순원 <학>
- ② 수남이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수남이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③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 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 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 ④ 내 마음은 언제나 어릴 적 꽃신장이네 공방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꽃신 곁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꽃신장이의 딸과 그녀의 꽃신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의 꽃신 뒤축과 흰 버선의 뒤텔만 바라보았다. - 김용익 <꽃신>
- ⑤ “옥희, 이거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 이라구,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 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18.** (다)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③ 소설 속 다른 인물이 ‘나’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④ 다른 인물이 ‘나’의 행동을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 ⑤ 서술자인 ‘나’가 행동을 묘사하여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뒷면에 계속

[19~21, 서술형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는 잠자코 열심히 꺾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꺾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 보고 저리 돌려 보고 굵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 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꺾고 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체한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체 대꾸가 없다. 점점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더 꺾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나) 이번에는 꺾던 것을 ㉠숫제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만 지쳐 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꺾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방망이는 다 꺾여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 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되어 있던 방망이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따위로 장사를 해 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本位)가 아니고 자기 본위이다.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예쁘게 꺾었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 보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듬이질할 때 옷감이 잘 ㉡치이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잇살이 퍼지지 않고 손에 ㉣해먹기가 쉽다는 것이고,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죽기(竹器)는, 대쪽이 떨어지면 쪽을 대고 물수건으로 겉을 씻고 뜨거운 인두로 곧 다리면 다시 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요사이 죽기는, 대쪽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잡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죽기에 대를 붙일 때, 질 좋은 ㉤부레를 잘 녹여서 흠뻑 칠한 뒤에 비로소 붙인다. 이것을 ‘소라 붙인다.’고 한다. 약재만 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숙지황을 사면 보통의 것은 얼마, 그보다 나은 것은 얼마의 값으로 구별했고, 구중구포한 것은 세 배 이상 비쌌다. 구중구포란, 찢고 말리기를 아홉 번 한 것이다. 눈으로 보아서는 다섯 번을 찢는지 열 번을 찢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을 믿고 사는 것이다. 신용이다.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다. 남이 보지도 않는데 아홉 번씩이나 찢 리도 없고, 또한 말만 믿고 세 배나 값을 더 줄 사람도 없다.

(마) 오늘, 안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북어를 뜯고 있었다. 전에 더덕북어를 방망이로 쿵쿵 두들겨서 먹던 생각이 난다. 방망이를 구경한 지도 참 오래다. 요사이 다듬이질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애수(哀愁)를 자아내던 그 소리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문득 사십여 년 전, 방망이 꺾던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19. (가)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은?(2.5점)

- ① 값싼 것이 비지떡
- ②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③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④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 ⑤ 고기는 씹어야 맛있요, 말은 해야 맞이하

20. ㉠~㉤의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2.5점)

- ① ㉠ 숫제 : 아예 전적으로
- ② ㉡ 치이다 : 한쪽으로 쏠리거나 뭉치다
- ③ ㉢ 다듬잇살 : 다듬잇감에 생기는 풀기나 윤기
- ④ ㉣ 해먹다 : 닳아서 떨어지다
- ⑤ ㉤ 부레 :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

21.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은 것은?(2.5점)

- ① 정환 : 모든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
- ② 원석 :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 ③ 상운 : 상대방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
- ④ 현서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
- ⑤ 영우 :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가 쉬운 것 같아.

<서술형 8>

위 글에서 노인의 방망이가 지닌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소재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쓰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서술하십시오.(5점)

- (1) 동일한 의미의 소재(2점) :
- (2) 글의 소재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3점) :

<조건> (2)의 경우 ‘~다.’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 <배점> 가. (1)의 경우 소재 두 가지 : 각 1점
- 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 1점 감점
- 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문맥이 어색할 경우 : 각 1점 감점

-----<끝>-----

※ 선택형 21문항, 서술형 8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와 서술형 답안 작성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21문항)	서술형(8문항)	
55	45	100



<객관식 정답>

1	②	11	②	21	②
2	③	12	②, ④		
3	③	13	④		
4	②	14	②, ⑤		
5	③	15	①		
6	③	16	⑤		
7	①	17	⑤		
8	①	18	①		
9	⑤	19	④		
10	③, ⑤	20	④		

<서술형 답안>

문항	정답
1	(1) 현재는 가수, 배우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작가, 미술가, 정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 주장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적으니 삭제한다
2	(1) ㉠ 토론 용어 : 입론 (2) ㉡ 논제의 특징 : 현실을 개선하려는 방향
3	(1) 쟁점 1 :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제관념이 생기는가? (2) 쟁점 2 : 아르바이트를 하면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가?
4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5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무 한 쪽을 예쁘 게 께아 내셨다.
6	(1) : 어머니가 앓아누우신 아버지의 약병지를 세던 밤 =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2) : 아버지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7	(1) 자신의 욕망을 중요시 여긴다. (2) 욕망보다 양심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8	(1) 죽기, 숙지황 (2)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